

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11. 18.

경 제 도 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강한곤 의원 등 5명(정순옥, 황국주, 이선주, 김장관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
- 회부일자: 2022. 11. 4.
- 상정 및 의결: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·경제도시위원회
(2022. 11. 18.)

2. 개정이유

-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,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유관기관, 전문가,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교통안전 봉사단체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)
-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유관기관, 전문가, 시민단체,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교통안전교육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명시(안 제7조)
- 기타 용어 정비 (안 제9조,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정의하고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의견수렴의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및 일부용어의 통일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제3호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시 유관기관, 전문가,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안 제9조에서는 현행 “교통봉사단체”를 “교통안전 봉사단체”로 변경하여 제2조의 “교통안전 봉사단체” 명칭과 통일하였으며,
 -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“관계기관”을 “유관기관”으로 변경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정의하여 봉사단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,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